

# 현대車, 장애인 이동 돋는 전동화키트 150대 지원

수동휠체어에 모터 장착  
단기 대여 셰어링 사업도

현대자동차그룹이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보급·셰어링 사업을 2년째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9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지원사업 전달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 40명을 포함, 학업과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150명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를 지원한다.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지원사업은 지난해 현대차그룹이 장애인들의 학업·경제 활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단체총



지난 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주현 사회공헌 본부장(뒷줄 왼쪽부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홍순봉 상임대표, 현대자동차 이병훈 상무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9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지원사업 전달식'을 가졌다.

연맹과 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소형모터와 배터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전동휠체어 관련 제품이 출시

되고 있으나, 가격대가 170만원에서 700만원에 이르고 정부의 장애인 지원 품목에서 제외돼 있어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자비로 구매하기 쉽지 않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43명을 대상으로 핸들형 및 조이스틱형 등 총 2종의 모델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바퀴일체형을 더해 총 3종의 모델을 150명에게 지원한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여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와 함께 전동화키트를 단기 대여하는 셰어링 사업 '휠셰어'를 진행중이다. 지난해 5월 휠셰어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월 평균 60~70여명이 전동화키트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누적 750명이 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무역협회-코엑스 자카르타서 韓 소비재 알린다

한국무역협회는 코엑스와 공동으로 7일부터 사흘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컨벤션센터(JCC)에서 '2019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 소비재전은 가장 많은 국내 기업이 참가하는 인도네시아 전시회로 올해는 작년보다 67개사 늘어난 210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무역협회는 이번 전시회에 인천, 대전·세

종·충남, 대구·경북, 전북 등 지자체와 함께 한국관을 구성해 식품, 뷰티, 패션, 생활용품 등의 국내 중소기업 46개사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신 남방 국가 바이어 간 맞춤형 1대1 상담회도 주선했다. 특히 현지의 뷰티, 패션 전문 인플루언서 아스타리 부디, 몰리타린 등과 손잡고 사전에 전시회 및 참가기업과 제품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연우 기자 ywj964@



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이 7일 전시회에 참가한 한국 기업관을 방문해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 오늘의 운세

11월 8일 (음 10월 12일)



36년생 초대는 감사하나 지출이 과하다. 48년생 과감한 투자는 손실로 이어진다. 60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즐거운 날. 72년생 장미가 만발하니 향에 취해 행동실수를 한다. 84년생 도와주는 상대에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37년생 충분한 휴식과 따뜻한 위로가 필요. 49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한계가 있다. 61년생 지금부터라도 노후준비를 해야. 73년생 이웃사촌이 형제보다 낫다. 85년생 계획을 세워야 나아갈 수 있으니 결과부터 행기지 마라.



38년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먹는 것을 조심. 50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다. 62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난감. 74년생 어제의 동지가 적으로 바뀌니 영원한 것은 없다. 86년생 바비킴이 몰아치니 외출을 자제해야.



39년생 숨겨왔던 솜씨를 마음껏 발휘. 51년생 신세진 이에게 은혜를 갚는 날. 63년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리는데. 75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87년생 힘들어도 걸어오던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다.



40년생 안목을 넓히고 고집을 피우지 마라. 52년생 화려한 무지개를 바라만 본다. 64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이 따르겠다. 76년생 기다리던 문서 일수록 잘 살펴라. 88년생 가장 우선순위는 가족에게 두어야 한다.



41년생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53년생 김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학수고대. 65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길이 보인다. 77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뛰지 않는다. 89년생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발전이 있을 것.



42년생 일이 미뤄지니 마음이 조급. 54년생 자식의 도움을 고맙게 여겨라. 66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은 독이 된다. 78년생 온종일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90년생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해서 일을 그르친다.



43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있다. 55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듯하니 지중할 때, 67년생 나를 스스로 응원하고 사랑하자. 79년생 물이 들어오니 힘껏 노를 저어야. 91년생 마음이 혼란할 때는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해보라.



44년생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 56년생 부모님의 태산 같은 은혜를 깨닫는다. 68년생 선택은 자유이나 책임은 절다. 80년생 이해를 바라지 말고 상대를 설득시켜라. 92년생 공이 돌아오나 동료에게 양보할 일이 생긴다.



45년생 된다 된다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 57년생 인맥을 통한 정보수집이 수월하다. 69년생 빛나는 창의력으로 주목을 받는다. 81년생 귀인을 만나면 장기투자도 좋다. 93년생 상사에게 잘하는 것이 내일을 편하게 한다.



46년생 우는 아이는 우선 달랠야 한다. 58년생 어항 속 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70년생 새것을 취할 때 좋은 재운이 들어온다. 82년생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이는 법. 94년생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니 매사 주의해 해두자.



47년생 오늘이 시작하기 딱 좋은 때. 59년생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라. 71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넣은 걸 어쩌라. 83년생 새사람보다 옛사람이 낫다. 95년생 구름 속에도 태양은 떠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텁텁!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9		5			
4			8		2			
7	2	4		1	9			
	6	2		1				
8						6		
3	9		1	7				
9		3	4	6				
6						5		
	7	1	9	4				

	7		3		2			
9		6	4			8		
4					1		3	
	8			6				
5	1		7			9	2	
		9			5			
1	2						5	
5			9	3			1	
	6		5	3	7	4		

스도쿠 정답								
2	3	7	1	5	6	9	4	8
1	6	4	9	8	7	2	3	1
9	5	8	3	2	4	6	7	5
3	4	9	8	6	1	7	9	6
8	2	1	5	7	3	4	9	1
5	7	6	2	4	9	8	1	3
7	8	2	4	3	5	1	6	9
4	9	5	6	1	8	3	2	7
6	1	3	7	9	2	5	8	4

문제 제공= **날씨**

## 디지털금융과 '보안'



### 기자 수첩

홍 민 영  
(파이낸스&마켓부)

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가령 fintech 업체의 오픈뱅킹 기능을 사용해 은행 거래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런 보안 문제 때문에 금융 당국도 오픈뱅킹 참여를 원하는 fintech의 보안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이미 추가경정예산 22억35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9억8500만원을 이에 배정한 상태다. 이렇게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다가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른 업체들일테니, 오픈뱅킹에 합류하는 fintech업체에 대한 심사 또한 더욱 엄격해져야 할 것이다.

최근까지도 주요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사에서 고객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학계 등 전문가들이 오픈뱅킹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다. 고객의 정보를 다른 금융사는 물론 결제망을 제공하는 금융결제원 등 모두가 이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야 할 때다.

/hong93@metroseoul.co.kr

## 김상회의四季

### 가정이 행복해지는 방법

언제부터인가 소통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떠올랐다. 직장은 이의 집단이고 서로의 목적이 달라 소통이 어렵기 마련이다. 소통 부재 현상은 가정에서도 드물지 않다.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할 가족끼리 서로 비난하고 감정 대립하는 일이 잦다. 가족의 불행은 불통에서 시작된다.

소통이 잘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팔자에서 재성을 봤을 때 남편은 정재이고 아내는 편재라면 재물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 정재인 남편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절약하면서 모으는 스타일이다. 편재인 아내는 흥망의 부침이 있더라도 사업 같은 활동을 통해서 재물을 얻기를 원한다.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다르면 소통도 어렵다.

사주가 다르면 타고난 성향이 다르며 가족이니까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 가족이어도 개개인은 서로의 성향을 다르게 지닌 한 사람이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한다. 다행인 점